

## 영화 속 휴머노이드

##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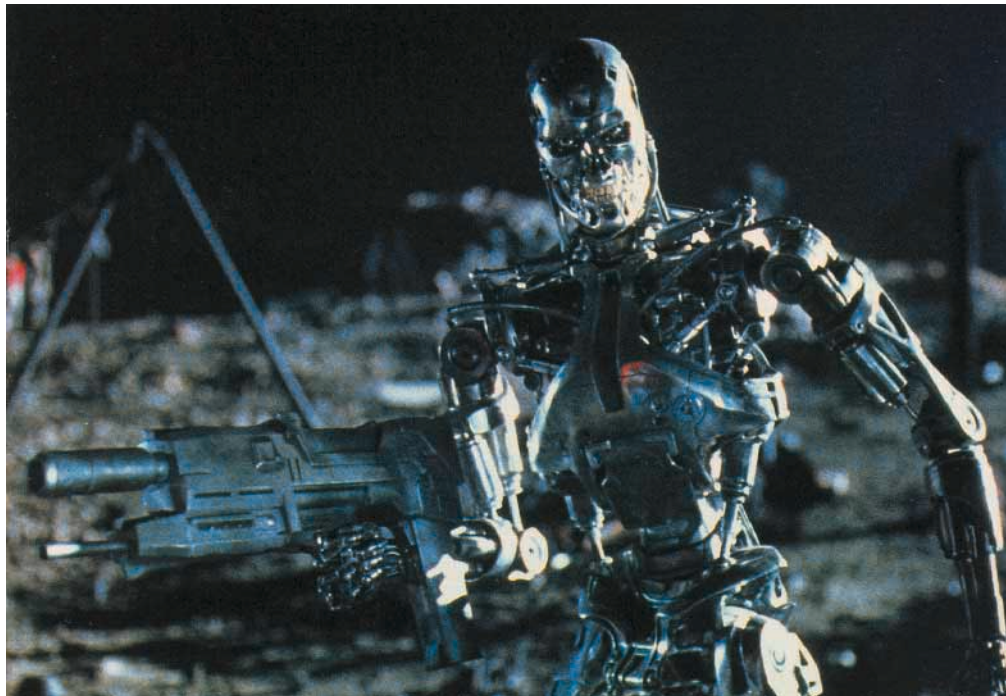
글\_ 박상준 과학칼럼니스트 cosmo@chollian.net

영화 속에 등장하는 로봇들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친근하다기보다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인간처럼 휴머노이드 타입의 외모를 지닌 그들은 외계의 괴물이나 미친 과학자 등과 함께 악역을 맡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고전 소설의 영향도 있고, 또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믿은 산업혁명 이후 서양 일부 노동계층의 생각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26년 독일의 프리츠 랑 감독이 만든 영화 <메트로폴리스>에는 영화 속 휴머노이드형 로봇의 대모라 할 수 있는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이 로봇 역시 복제인간으로 둔갑하여 노동자들을 선동, 폭력을 행사하게 만든다.

그러나 오늘날 이 로봇은 악역 이미지와는 상관없이 시대를 뛰어넘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로부터 수십 년 가까이 흐르도록 영화 속에 나오는 로봇들은 대개 깡통 땀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마리아의 디자인을 보면 무려 50년 뒤에 만들어진 영화 <스타 워즈>의 로봇 C-3PO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그만큼 마리아의 디자인은 현대적이었던 셈이다.



## 인간을 위협하는 악역으로 영화 속에 등장

로봇이 인간의 친구로 극적인 변신을 한 것은 1956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금지된 세계>에서다. 이 영화에 나오는 로봇 '로비'는 인간의 충실한 하인이자 만능 재주꾼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로봇 캐릭터가 하나의 대중적 스타로 부각된 것은 사실상 '로비'가 최초이며, 그 인기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미국에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거쳐 손자 세대까지 하나의 공감대로 묶어주고 있다. 사실 로비는 휴머노이드이기는 해도 머리카락 모양이 좀 우스꽝스럽게 과장된 모습이라서,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처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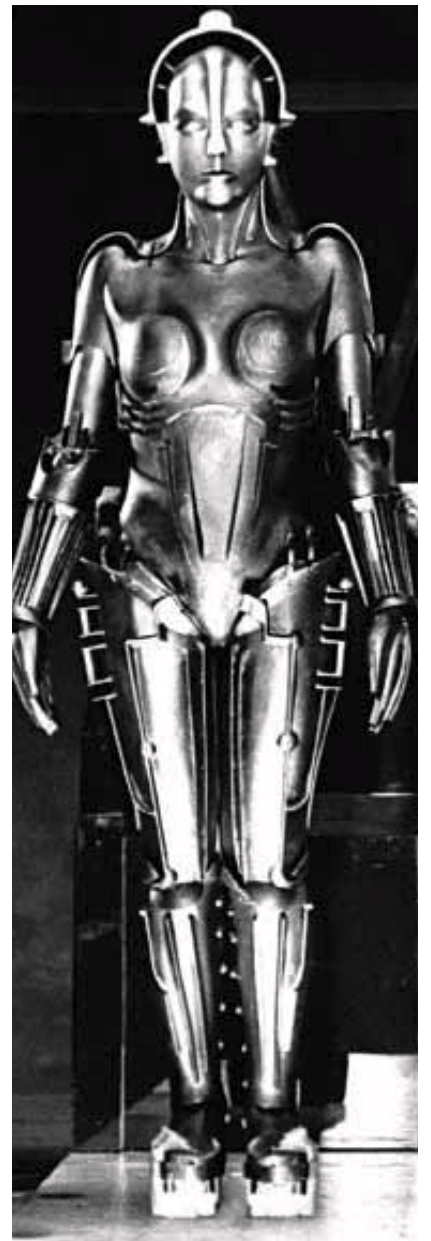
1970년대의 로봇 영화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으로 <웨스트월드(1973)>가 있다. 이 영화는 오늘날 <쥐라기 공원>의 작가로 유명한 마이클 크라이튼이 각본을 쓰고 직접 감독까지 했는데, 내용 역시 <쥐라기 공원>처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과학기술을

다루고 있다. 서부개척시대를 재현한 테마공원에서 로봇 총잡이가 입력된 안전 프로그램을 어기고 인간에게 총을 쏘아댄다. 대머리 명배우 올 브리너가 로봇 총잡이를 열연하여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1977년에 이르러 <스타 워즈>가 발표되자 로봇 캐릭터는 일약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두 로봇 콤비인 R2-D2와 C-3PO는 서로 상반된 외모를 지녔는데, 인간과 같은 휴머노이드 타입인 C-3PO보다 단순한 강통 형태인 R2-D2쪽이 더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일종의 '이동형 만능기계'인 이 로봇은 인간보다는 주로 기계나 컴퓨터들 사이

후속편이 제작되면서 엄청난 인기의 상승 효과를 누리게 된다.

<터미네이터>와 함께 80년대가 낳은 또 하나의 로봇 캐릭터는 1987년작인 <로보캅>이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제목과는 달리 로봇이 아니라 사이보그이다. 로봇은 100% 인공물인 반면, 사이보



의 인터페이스로서 활동한다는 과학적 묘사의 충실함 덕분에 이전까지의 단순하고 막연한 역할의 로봇들과는 차별성을 띤 것이다.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영화 속의 로봇은 더 세련되고 정교해진 모습을 나타내었다. 게다가 역할도 인간의 정체성 탐구라는 진지한 주제의 상징으로 격상되었다. 외모나 언행만으로는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고도의 로봇을 흔히 '안드로이드'라고 부르는데, 1982년에 발표된 <블레이드 러너>는 바로 안드로이드가 등장하는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이 영화의 안드로이드 제조회사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있으며, 실제로 안드로이드들은 인간보다도 훨씬 더 절박하고 숭고하게 삶과 인간성의 의미에 매달린다.

1984년에는 오늘날 가장 유명한 로봇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터미네이터>가 처음 등장했다. 시간여행의 패러독스와 로봇 액션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이 작품은 90년대 들어

그는 인간을 비롯한 생물 신체의 일부를 기계나 인공기관으로 대체한 것을 뜻한다. 로보캡은 비록 전신이 금속 뼈대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머리는 사망한 경찰관의 두뇌를 되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로보캡은 이따금 예전의 희미한 기억을 떠올리며 자기정체성의 고민에 빠지게 된다.

1990년대 이후에는 가상현실을 다루는 사이버펑크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로봇 캐릭터들은 한동안 침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TV 연속극인 <스타 트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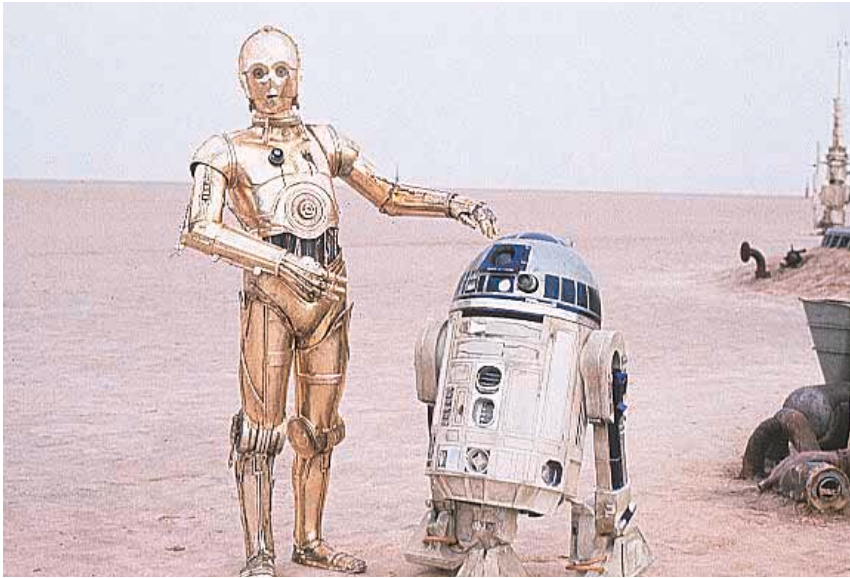


그 다음 세대)에서 승무원 중 한 명으로 나오는 '데이터'의 등장은 의미심장하다.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안드로이드인 그의 전자두뇌는 경이로움과 의문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스스로 진화가 가능하다. 등장할 때마다 항상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에 몰두하면서 인간에 가까워지려는 모습은 오늘날의 로봇 담론에서 사실상 가장 진보된 역할이라고 불리도 손색이 없다.

#### 지구 문명 계승할 인류의 후계자로 묘사되기도

1992년에 나온 <터미네이터 2>는 무정형의 액체금속 로봇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액체금속 로봇은 SF로봇의 변천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단순한 시각효과적 신선함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화두를 던졌기 때문이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이러한 액체금속 로봇의 제작이 일단 불가능하지만, 그렇다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들은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 상상을 해 볼 수 있다. 이를 테면 상온에서 고체와 액체 상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신종합금의 개발이나 나노테크놀러지로 커니즘 등등. 아무튼 이 액체로봇은 현재까지 등장한 모든 SF로봇들 중에서 물리적으로는 가장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21세기의 초입에 발표된 <바이센테니얼 맨(2000)>은 SF팬들에게는 단순히 한 편의 영화 차원을 넘어서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로봇' 주제의 SF작가로서 독보적인 명성을 쌓았던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이 장장 60여년 만에 스크린에 구현되었던 것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른바 '로봇공학의 3원칙'에 충실하면서 한 순간도 인간이 되려는 갈망을 포기하지 않는 로봇이다.



이 무척 흥미로운 작품이었다. 예컨대 로봇은 지구 문명의 미래를 계승할 인류의 후계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이 설득력이 있다면, 인간과 로봇은 진작부터 일체가 되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도 있을 것이다. 오시이 마모루 감독의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1995)>와 그 속편 <이노센스(2004)>가 바로 그런 설정을 극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그리고 아시모프의 또 다른 로봇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아이 로봇(2004)> 역시 인간과 로봇의 연대를 긴박감 넘치는 구성으로 잘 소화했다. 이 영화에서 로봇은 집단적으로 인간의 명령을 무시하고 심지어 공격하기까지 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만, 결국은 인류를 위한 고도의 판단이었음이 밝혀진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인간과 같은 외모를 지닌 휴머노이드 형의 로봇은 미래 인류에게 아주 적합한 동반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로봇공학 기술,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부족한 탓에 이런 로봇은 당분간 영화 속에서밖에 접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일본이나 우리나라 등에서는 휴머노이드 형의 2족 보행 로봇을 속속 개발해내고 있지만, 아직은 동작 메커니즘의 구원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래도 21세기의 절반 즈음에는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을 준수하는 로봇 친구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㉔



로봇공학의 3원칙이란 아시모프가 창안한 로봇의 행동강령이다. 1원칙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협에 처한 상황을 방관하지 말 것, 2원칙은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 절대 복종할 것, 3원칙은 앞의 두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항상 스스로를 보호할 것. 사실 이런 원칙들을 저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은 아직 요원하지만, SF적 설정으로는 매우 흥미로운 장치가 된다.

2001년에 개봉된 스피버그 감독의 <A.I.>는 주인공이 여태게 모성을 갈구하는 로봇 소년이라는 것 외에 인류의 유산을 이어갈 독특한 존재로 묘사되었다는 점



글쓴이는 한양대학교 지구해양학과를 졸업했다. '세계SF결작선(역음)', '라마와의 링대부(옮김)',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공저)' 등 20여권의 책을 냈으며 동아일보, 한겨레21, '씨네21', KBS라디오, YTN-TV 등에 칼럼을 연재했다.